

이 시대의 빈곤한 역사의식

안 병 옥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17세기 청나라의 침략으로 이른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임금과 관료들은 남한산성으로, 그들의 가족들은 강화도로 피난 갔다. 양반 지배층들이 강화도를 피난처로 삼았던 것은 지난 역사의 경험에 따른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보다 400년 앞선 고려시대에 몽고의 침략을 받았을 때 고려의 왕실과 지배층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다. 고려는 그 곳에서 30여 년이나 버티면서 몽고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다. 고려가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한 몽고제국을 상대로 수십 년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유목민 출신인 몽고 병들이 해전(海戰)에 약하다는 점을 활용한 전술 덕택이었다.

조선의 양반 지배층들은 청나라 군대도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다의 싸움에 약하리라고 판단하고, 피난처를 강화도로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청나라 군대는 단숨에 강화도를 점령하였고 거기 피난 나와 있던 양반가의 부녀자들을 유린하고 포로로 청나라까지 끌고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청나라에 가족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송환해야 했다.

이처럼 조선의 지배층이 수모를 겪게 된 것은 13세기 몽고와 17세기 청나라라는 400년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 차이를 무시했다고 하는 편이 더 알맞은 표현일 것이다. 역사의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정책 당국자들이 시대와 주변 여건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역사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역사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초래하기까지 시행되었던 대외개방 정책의 천박하기 짝이 없는 수준을 살펴본다면 그런 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익히 아는 바대로 19세기 우리 사회는 서세동점의 세계사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끝내는 일본의 식민지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상고하면서, 당시에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더라면 일찍이 근대화를 이루어 식민지배 같은 고통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정책 당국자들은 이런 반성을 앞세워 거의 모든 시책들을 대외개방이라는 처방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세계화 논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19세기 봉건시대의 개화론적인 사고와 인식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훨씬 앞서서 내달리고 있는데, 기껏 봉건적인 지배와 통치 논리를 가지고 고도의 현대문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세계는 냉전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만 그 틀을 전가의 보도처럼 부여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만과 오만에 빠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파산의 위기에 처한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운명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존재를 새삼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시련으로부터 세계 무대의 깊이를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그 깊이를 짐작도 못한 채 환상에 빠져 있었다. 우리가 근대 문명, 특히 자본주의의 역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경영해본 기간이라고 해봐도 채 반세기도 되지 않는다. 그것도 대부분 냉전체제에 의탁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어물쩍 지나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대단한 경륜이라도 지닌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기도 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역사인식의 빈곤에 있다고 하겠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 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를 17세기 조선의 지배층이 보여준 바와 같은 단순하고 교조적인 역사인식으로는 제대로 해결해 가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누구나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다. 똑같이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 이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서 지혜를 얻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역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경험은 그 자체로 곧바로 필요한 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요즈음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뒷날의 역사에서는 외국 금융자본의 관리통제를 받아야 하는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잠시 헤아려 보게도 된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난감하고 허탈한 중압감을 피할 수가 없다. ■

안병욱/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1894년 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치", "민족통일과 한국 사학의 과제" 외 다수를 발표했다.